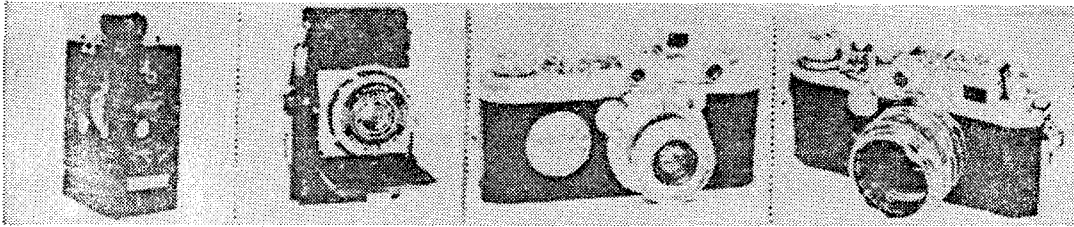


카메라와 寫眞 (3)

—日製는 中級型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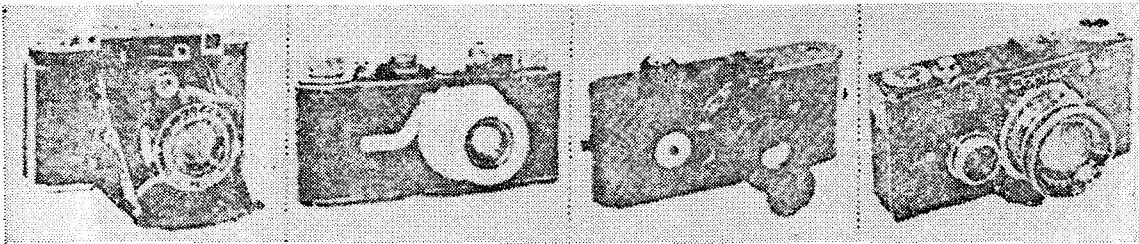


안스코 메모

코닥 배치나

한자개논

캐논 IV56



슈퍼 식스

라이카A

라이카 폴로르타입

콘택스 I 型

—承 前—

9. 롤필름과 코덱

美 Kodak 이 롤필름을 工業生産하여 需要를 喚起시킨 功績은 至大하다. 그 롤필름·카메라를 코덱이 가장 먼저 發賣한 해는 1888年이다. 이 필름은 暗室裝置필름이며 1895년에는 현재와 비슷한 낮에 裝填할 수 있는 Pocket Kodak(포켓·코덱)을 市販하였다.

그 1號코덱은 파인더는 없으며 포켓·코덱은 리더페퍼의 番號를 보낼 수 있는 視窓을 카메라에 붙이기 시작했다.

코덱은 북스·타입을 오랫동안 製作하였으나 蛇腹付필름·타입의

카메라는 獨逸에서 優秀製品이 나오기 시작하여 카메라의 獨逸製權威를 誇示하기 시작했다.

코덱은 1912년에 Vest Pocket Kodak (베스트·포켓·코덱)이라는 롤필름·카메라를 市販하였다. 메니스카스單렌즈에 簡單한 構造의 셔터를 단 普及型小型 카메라인 롤필름·카메라는 알루미늄板을 C字形으로 灣曲시켜 양쪽에 輕合金다이커스트製무경을 싸우는 보디·디저인이었으며 世界的인 人氣를 끌었다.

1次大戰後의 유럽에서는 봄을 타고 같은 畫面 크기인 4×6.5cm 짜리 小型카메라가 여러種類 出現하였다. 代表的인 것이 콘데서·네펠

(獨)이 1920년에 Piccolette(피콜레트)를 만들었고 日本에서도 1925년부터 小西六本店에서 Pearlette(파레트)를 市販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그나라에서는 最初의 大量生産機種이며 유럽 各企業들은 더 高級同型을 製販하였다. 獨逸제일의 베스트·포켓·롤필름·디넥스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 려는 가운데 美 베스트·포켓·코덱 등의 普及型을 制壓하기에 이르렀다.

10. 렌즈附着大口徑엘마눅스

1차대전후 常用의 F 4.5 보다도 밝고 렌즈의 口徑이 큰 大口徑렌즈의 流行潮流에 便乘하여 獨逸이

後進性を 脱皮하였는데 그 製品이 Ermanox(에르마녹스)이다. 엘마녹스는 -F 1.8 렌즈와 보디가一體가 된 乾板과 필름백兼用 카메라이며 역시 독일의 에르네만이 1923년에 시판하였다. 이 엘마녹스가 即時 撮影態勢를 갖춘 카메라이다.

에르마녹스型은 지금도 普遍化되고 있으나 1890年代에 이 型式의 카메라 즉 乾板12枚의 쟁징·복스付着 쥬류타입·카메라가 프랑스에서 제조 판매되었다.

11. 스프링·카메라

스프링 카메라는 1898년에 코맥이 내놓은 Folding Pocket Kodak (폴딩·포켓·코맥)이 1號가 되며 1차대전 후에는 독일의 이카가 Ica Atom(이카·아톰) 51 등 여러 종류의 푸레·스프링·카메라를 내놓았다.

롤필름·카메라는 美코맥이 發明한 후 필름消費促進을 前提로 普及型 카메라를 제조하였다. 이때 後發 獨逸은 高級型에 着眼하여 렌즈는 Tessar를 1902년에 개발하였고 셔터는 1912년에 Compur(콤포퍼)를 만들어 斯界에서는 世界最高級品을 生産하였다. 보디 역시 高級化하였으며 이때야 따로 合理的인 方法에 따른 스프링·카메라 時代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즈아이·이콘이 1929년에 시판한 Ikonta(이콘타)는 스프링·카메라의 最初製品이며 이 方式의 것은 세미·이콘타, 베비·이콘타 등 各種 카메라로 變化하였다.

또한 이에 距離計連動機構를 組合한 스퍼·이콘타와 Prominent(프로미넌트) 등의 고급 타입이 제작되었고 이어서 電氣露出計를 備트인한 Supar Ikonka(수퍼·이콘타)가 나왔으며 스프링·카메라는 2차대전 전에 그 絶頂을 이루었다.

12. 라이카가 精密性的의 嚆矢

1925년에 독일의 라이즈에서 시네필름을 사용하는 小型精密 카메라인 Leica A(라이카)가 시판되었는데 이 라이카는 여러 고급카메라에서 長點을 取擇했다고 볼 수 있다.

全體構想은 에르마녹스에서 따고 보디의 骨格과 필름裝填方法은 베스트·포켓, 메거진은 프랑스의 短尺映畫撮影機인 세푸트를 본받은 것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라이카는 프로트타일이 매우 좋아서 크기를 바꾸지 않고서도 改良을 계속하였다. 렌즈交換을 위한 마운트採用, 연동거리계의 內藏, 각종 교환렌즈, 補助撮影用具 또는 專用引伸機까지 갖추었고 組織카메라로서의 存在를 誇示하기 시작했다.

이에 對抗한 것이 當時의 세계최대카메라 메이커인 즈아이·이콘이며 同社의 技術陣은 總力을 集結하여 Contax(콘택스)를 만들었다. 따라서 고급 카메라세계는 라이카와 콘택스가 兩分占有한 셈이었다. 이로써 라이카 이전부터 있던 렌즈·셔터付着 35mm 카메라는 라이카의 登場으로 싱글·사이즈가 사라지고 24×36mm의 더블·사이즈로 된 中級카메라가 나돌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코맥회사 제품인 Petina는 戰前의 代表級 카메라였다.

13. 日本 카메라

日本은 1936년에 처음으로 35mm 짜리 카메라인 Hansa Canon(한자·캐논)이 나왔으며 캐논회사의 前身인 精機光學研究所에서 제작되었다. 한자의 裝着렌즈가 니콜 50mm F 3.5이고 이 카메라는 連動距離計機構가 라이카의 特許를 피

하기 위해 비우파인더를 別個로 着設함으로써 突出式이 되었다. 2차대전 전 일본에는 한자·캐논과 日本·카메라의 2種 뿐이었으며 戰後에서야 니콜타 35, 니콘 I, 니카, 레오탁스 등 35mm 로칼프렌·타입이 나왔다.

日本企業들은 라이카의 技術水準에 接近하고자 무진 애를 썼으며 1952년에 캐논 IV Sb를 제작하여 日本獨自의 라이카·타입을 시판하였다.

그러나 1954년 라이카 회사는 Leica M3를 내놓음으로써 그 構造的, 技術的으로 性能을 誇시하게 되어 일본카메라와 큰 格差를 벌였고 이에 따라 끝내 M3를 쫓지 못한채 1眼 35mm로 轉身하였다.

14. EE型에서 콤팩트화로

1956년 독일의 어그퍼가 발표한 어그퍼·오토매틱 66이 이른바 엘릭트릭·아이(EE)의 先驅型이고 코맥의 수퍼·코맥의 620은 露出計와 연동기구를 갖춘 최초의 카메라이며 1938년에 제조 판매되었다.

일본의 최초의 EE카메라는 1960년에 올림퍼스가 내놓은 올림퍼스·오토아이가 있고 다음에 理研光學의 리코·오토35가 나왔으나 1961년에 캐논이 시판한 EE가 普及型이 되었다. 이들 日製 EE카메라는 中級이며 虹彩紋露出計와 연동시키는 方式이 많이 채용되었다.

35mm 렌즈 셔터·카메라는 EE化후 1966년에 西獨프란케·하이텍 커에서 發表한 로라이35에 의해 콤팩트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은 1970년에서야 스트로보 內藏의 코니카 C 35 EF가 나왔다.